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1월30일 주일 설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9 / 새찬송가 31 (통일 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 하리라’고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창8:22). 그래서 법칙이란 습관과 달라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생활에도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천국에 대한 말씀이 바로 법칙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갈6:8).

2.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의 진원지는 세상이요 피조물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요일 2:16).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으로 만드신 우리 육신이 그 말씀대로 죽고 썩어져 흠으로 돌아감으로써 허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흠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흠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창3:19).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 좋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하고 사라질까봐 근심 염려하기에 우울함을 겪습니다. 이에 우울하거나 근심 염려가 몰려올 때는 세상의 영인 귀신을 내쫓고 피조물에 마음을 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롬 1:23-25).

피조물인 이 세상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라진다 해도 크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세상에서 뭔가 잘 된다고 해도 크게 기뻐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테니 결국 허무할 따름입니다.

3.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하나님의 좋으심도 사라지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좋으심을 체험하고자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건강과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마6:24-31). 심지어 피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누린 솔로몬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4.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악 된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을 멸망의 최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요3:16). 썩어질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고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최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 자연을 구원해 내야하며 자연을 보존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은, 세상 사랑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해선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최고 등급의 사랑입니다(요일2:15-17).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강건해야 하고 형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몸이 아프면 염려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잠30:7-9).

이처럼 피조물의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좋으심을 추구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요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중도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갈6:9).

< 적용 & 실천 >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으로 심는 것이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인생의 목표로 둥시다!